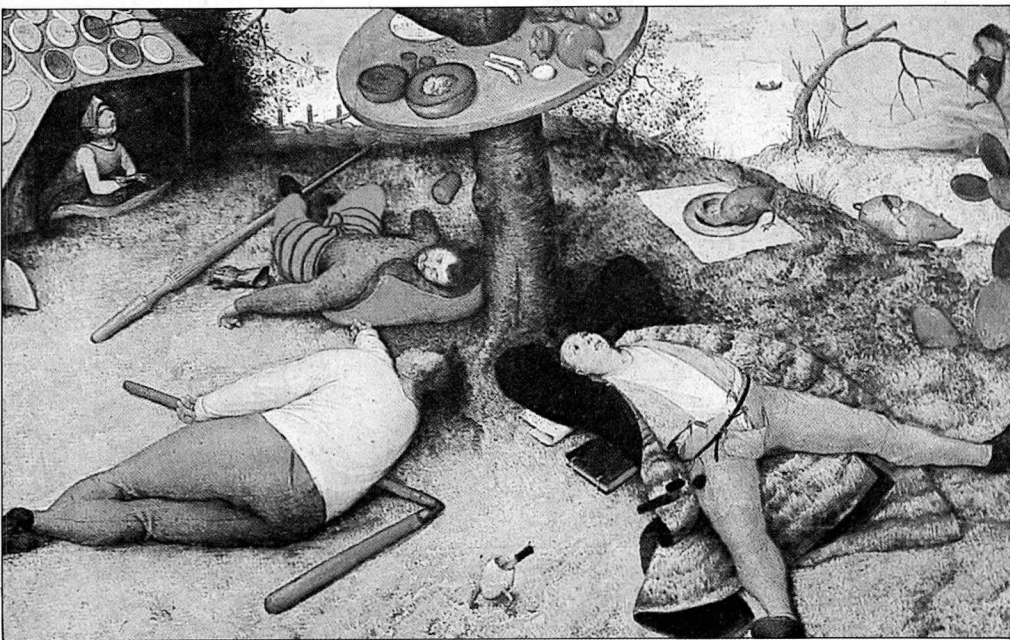


# 미술사와 일반사의 만남과 충돌

프랜시스 하스켈 지음 「역사와 이미지」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지난 30여년을 회고하면 미술사와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기묘한 춤을 추었던 것 같다. 웬고하니 많은 미술사가들은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특성을 애써 회피하고 오히려 작품을 당시 사회-경제적 문맥에서 해석하려고 애썼던 데 반해,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회의 모습과 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마치 그림처럼 그려내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림과 조각 그리고 건축물들은 심미적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증거물로 값어치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학술상의 '기묘한 춤'은 전시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하는 미술관 종사자들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는데, 때로는 우습지도 않은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이다. 이즈음에 옥스포드 대학 예술사학과 교수인 프랜시스 하스켈(Francis Haskell)이 새로운 관점에서 예술과 역사의 관계를 비판한 역저 「역사와 이미지」(「HISTORY AND ITS IMAGES, Ar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ast」, Illustrated. 558 p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를 상

재하고 있음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학자이면서 보기 드물게 달변인 그는 미술사를 일반 역사의 굴레로부터 원래 그림 속의 환경으로 되돌리는 데 앞장선 사람이다. 여기서 그는 현대의 논쟁 복판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방식이 대단히 독특하고 창발적이다. 말하자면 '이건 이리니 저렇다'는 논증의 방식이 아니라, 문헌학적이다. 또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는 식의 훈계조가 아니라, 박식함으로 질러버리게 만드는 방식이다.

저자 하스켈의 이야기는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한다. 문헌사가인 아르날도 모미그리아노의 유명한 논문으로부터 이야기를 끌면서 그는 16세기부터 18세기의 학자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산문체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역사가들이며, 또 하나는 지나간 사회와 문화의 결을 복원하려 애쓰는 골동품 연구가들이다. 골동품 연구가라니까 퍼뜩 도굴품 장물아비 정도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영웅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대와 중세

를 증거할 가시적인 물건들을 수집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고대의 동전을 끌어모으으로써 동전속에 새겨진 로마 황제의 모습을 알현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콘스탄틴의 아치와 트라잔의 기둥을 조사함으로써 로마시대의 유니폼과 무기체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몇몇 골동품 연구가들은 가시적인 증거들이 구전설화들과 상반되는 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대 세계의 의식과 관습은 역사가들이 그려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며, 또한 역사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찬탄스럽고 풍요로웠음을 유물으로써 증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은 역사가들로 하여금 저속속의 연대추정을 상당 부분 교정시키는 기회가 되기는 했으나, 골동품 연구가들의 성과가 역사학의 주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18세기 전까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골동품 연구자들이 발굴·발견한 동전, 조각, 기타 화병 등속을 연구 주제속에 포섭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20세기에 이르러 호이징가와 같은 문화사가들에 의

해 비로소 미술품을 역사자료로 진지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호이징가의 경우 당대 철학을 역사화했던 볼테르와 기번 같은 이들, 역사를 철학화했던 헤르더와 헤겔 같은 독일 낭만주의자들과 상당한 기맥이 통한다고 본다. 이리하여 드디어 미술과 역사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결혼은 서구 역사학계의 거장들, 예컨대 기번, 랑케, 미슐레 그리고 부르크하르트 등에 의해 이끌어졌다. 이런 사조는 고대의 문화가 쇠퇴하게 된 것은 언제이며,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 또는 찬란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고대 미술로부터 중세 교회건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등 긴급한 사학계의 질문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자 하스켈의 예리한 눈길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같다. 가장 정교하기로 소문난 미술사가라 할지라도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또 많은 미술사가들은 자시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작품들만 속아내어 쓰고, 부정적인 미술적 증거들은 슬며시 감추어버리기도 한다(하스켈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디오크레티안 황궁을 기번 같은 이는 역사적 자료로 삼는 데 반대한 적이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옳다). 또 어떤 역사가들은 역사서술에 채용되는 시각적 자료들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저자에게 문화사가 호이징가는 여러 의미에서 영웅적 존재이다. 이런 견해는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저자 하스켈은 프랑드르 예술에 대한 호이징가의 복잡한 해석과 평가는 현대 미학에 대한 안목과 또한 스스로 아마추어 미술가였던 데서 기인했다고 본다. 이런 설명은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럴싸하다. 그러나 호이징가도 역시 오류를 범했다. 「중세의 가을」 같은 데서 묘사한 중세말기 버건디 지방의 삶에 대한 그의 치밀한 묘사는 기실 예술작품으로부터 얻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문헌자료로부터 직조된 것이다. 또한 만다이크를 위시한 플랑드르 油畫화가들을 중세의 전통이 깊숙이 뿌리를 내린 전통화가로 보아야지,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과 비견해서 북구 르네상스의 창조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그

의 견해도 편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며, 역시나 예술과 사회에 대한 단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 「역사와 이미지」는 물론 미술과 역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는다. 하스켈이 선택한 영웅과 속물은 저자 자신의 안목에 따른 것일 뿐이다. 호이징가보다 더 현대적인 사가들, 예컨대 마이클 박산달(Michael Baxandall)이나 사이먼 샤마(Simon Schama) 같은 이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술사 비평은 일반 역사가와 미술사가들이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 지침서임은 분명하다.

## 파키스탄의 명문 부토家の 첫수상 줄피 부토 전기

최근 외신은 파키스탄의 부토 여사에게 재집권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토 여사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여성 정치가임은 어느정도 알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파키스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즈음 부토 여사의 아버지, 줄피카르 알리 부토(Zulfikar Ali Bhutto)에 대한 책이 상재되어 그 의문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서남 아시아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스탠리 윌퍼트(Stanley Wolpert)가 쓴 「파키스탄의 줄피 부토」(「ZULFI BHUTTO OF PAKISTAN, His Life and Times」. 378 p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가 그것.

부토는 1970년대 파키스탄의 대통령이자 수상으로서 부국강병의 꿈을 향해 매진하다가 1979년 근위병단의 쿠데타에 의해 실각, 끝내 사형을 당했던 불운의 정치인이다. 오늘날에 와서 그는 대략 지난 사반세기 동안 부침했던 제 3세계 정치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노회하며, 또한 도발적인 인물로 평가

되고 있다.

부토는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패전함에 따라 동쪽의 방글라데시가 떨어져나가는 등의 국망의 위기에 국가를 결속시켰던 탁월한 인물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초창기부터 아프가니스탄 민병대를 지원했던 국제적인 정치가로 인지도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아마 세계 사람들에게 서늘한 기억으로 인식되기로는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선도하여 성공시킨 일 때 문일 것이다.

비전을 가진 정치가로 또는 부패한 독재자로, 또 한편으로는 허세부리기 좋아하는 정치가로 또는 진정한 민중의 영웅으로, 이처럼 부토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평가들을 동시에 받았던 인물이다. 「파키스탄의 줄피 부토」의 저자 윌퍼트 교수 역시 그를 “영광에 대한 로맨틱한 열망”과 “황폐한 어둠” 사이의 갈등으로 찢겨진 “정신분열적 퍼스널리티”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뷰와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저자는 대상 인물들의 좌우를 유루없이 잘 묘사해내고 있다. 이 속에는 부토의 삶과 통치에 가려진 추한 측면—가령 엽색 행각, 잔인한 성격으로부터 민주제도를 부패케 했던 정견에 이르기까지—들도 냉정하게 도마위에 오른다. 예컨대 저녁식사에 초대되었음에도 한밤중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이슬람 군주”식 통치를 비판했던 한 장관이 그날 밤으로 죽임을 당한 일화가 그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전반적인 색채는 기

본적으로 긍정적이며 관용적이다.

저자 윌퍼트 교수의 서술은 가끔 건조하지만 부토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건조하지 않다. 여기서 신드 지방의 부잣집 아들이었던 부토가 국가의 세 권력 핵심, 즉 봉건 귀족들, 군대 그리고 회교 성직자들을 하나로 아울러 불같은 민주주의자로 화하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진다.

선거유세 동안 부토는 조끼를 벗어젖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셔츠까지 벗어버리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외치곤 했다. “총알 쏘면 무섭지 않아. 쓰라구. 쓰라구. 쓰라구.” “나는 국민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등의 표현을 자주 구사하곤 했다.

그런데 이 책은 파키스탄의 국가와 그 사회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다는 결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저자는 부토의 삶과 정치적 궤적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의 정책이, 특히 그의 경제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가’라는 부토 몰락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거의 제기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열정적인 사회주의자로서 부토는 산업과 은행을 국유화시켰었다. 그러나 그의 이른바 토지개혁은 실제로는 지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과로 끝났으며, 회교의 성직자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그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군인들을 크게 우대했지만 결국 그를 실각시킨 것은 군대였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힌두교식 이

상은 세속사회에 작동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독립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부토를 위시한 파키스탄의 지도자들은 이슬람의 교의 또한 세속 사회의 힘을 통합하는 데 근본적으로 취약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 부토의 몰락을 이끈 결정적인 실수로 여겨지는데 저자가 이 점을 더욱 상세하게 다루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윌퍼트의 책은 현대 세계사의 중요한 한 부분과 나아가 한 인간과 그의 빛나간 비전을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고 있다.

## 기자의 눈으로 그린 한 야수파 화가의 초상화

1912년 한 미국인 기자가 파리의 교외에 위치한 이씨 레 물리노(Issy-les-Moulineaux)를 방문하여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와 인터뷰를 했다. 당시 43세였던 마티스는 이곳에서 전세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던 것. 그건 꽤 많은 아이디어였다. 이 무시무시한 ‘야수’ 라면(그의 그림은 당시 보수적인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공포감을 자아냈기에 그를 야수파 Fauvism 작가라고 칭했다) 꽤 많은 생생한 장면과 아나키한 정감 그리고 보다 보헤미안적인 정조를 묘사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로 여겼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

다.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르고 안경을 낀, 평범한 옷차림의 마티스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평범한 사람이라고 전해줘요. 나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서—나는 자식놈 셋을 거느리고 있소—극장에도 가고 말도 타고 하면서 안락한 가정과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데 애쓰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하고 기타 등등 온갖 것들,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이건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이, ‘프리다 콜로’와 ‘마리 프랑크’의 전기기를 집필한 적이 있는 헤이든 헤레라(Hayden Herrera)의 신서 「마티스의 초상」(“MATISSE A Portrait”, Illustrated. 233 pp.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에서 다루는 주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원을 가꾸고 운동을 함께하는 자애로운 거부장의 이미지 내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보다 복잡한 퍼스널리티가 숨어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헤레라가 보기에 마티스는 불변증으로 “미칠듯한 초조감”으로 시달렸으며, 스스로 칭하는 “전제주의적 에고티즘”의 (거르루드 슈타인은 ‘전제주의적’이라는 형용사를 ‘야만적’이라고 바꿔 표현했는데) 자존심과 시원찮은 사람(것)들은 안중에 두지 않는 자아 도취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아버지가 마티스와 절친한 친구였던 제인 부쉬(Jane Simone Bussy)는 화가의 자아 도취는 “격렬한 성취감”일 수 있으며, “거만한 에고티즘의 배후에는 다른 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대부분 막혀버렸던

까닭이 있다”고 풀었다.

마티스는 그의 아내 에밀리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이로 해서 그녀는 정신분열증적 불안 증세를 보이곤 했다고 한다. 1930년대에 화가는 여봐란 듯이 아내 에밀리의 간호원 리디아 텔렉트르스카야와 염문을 오래도록 뿌렸다. 이 외에도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닌듯했다. 1935년에서 37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예외적인 그림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마티스의 외면적인 딱딱함과 완고함의 배후에는 그림에서만 안식을 찾는 마성(魔性)이 숨어 있었다. 화가는 자아를 마성을 숭배하는 그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저자 헤레라는 화가는 그 과정에서 “의혹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리고 “그의 그림을 대상화시켜 대화를 나누었음직하다”고 쓰고 있다. 그는 캔버스 앞에서 “자주 정신적 공황현상에 시달리곤 했다. 그는 땀을 질질 흘리고, 와들와들 떨다가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또 평평 울기도 했다.”

헤레라의 마티스에 대한 묘사는 한 화가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 그동안 예술사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마티스 해석의 난점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헤레라의 「마티스의 초상」은 본격적인 마티스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연구서라기보다는 잘 다듬어진 마티스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독교초대교회형성사

-서양 고대종교사상사-  
루돌프 볼트만 지음 / 허혁 옮김 / 1993 / 신국판  
238면 / 6,000원

기독교를 삶의 정황과 밀접하게 관련했고 있는 역사 속의 한 종교로 이해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세계에서 성장한 기독교 초대교회의 형성사를 서술, 기독교가 어떻게 새로운 실존이해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해석한 신학서이다.

### 책임적 자아

리처드 니버 지음 / 정진홍 옮김 / 1983년  
30절판 / 258면 / 3,500원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에서의 30여년간에 걸친 기독교윤리학 강의의 골격을 추린 것으로, 니버의 기독교윤리 사상, 즉 철학적 윤리와 신학적 윤리와의 관계, 목적론적 윤리학, 의무론적 윤리학, 응답의 윤리학 등 삶의 구조와 역동성을 밝혀준다.

###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1882~1945-  
김봉희 지음 / 1987 / 신국판 / 334면  
6,500원

19세기 말엽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성서·찬송가·잡지·신문·일반문서 등 기독교문헌을 서지적으로 집대성하여 간행소별, 주제별로 목록화함으로써 기독교문서의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을 밝혀준다.

### 종교사회학

토마스 F. 오데아, 자넷 O. 아비아트 지음  
박원기 옮김 / 1989 / 신국판 / 192면  
5,000원

종교사회학의 이론체계를 다루면서 종교의 인간적인 의미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종교의 기능과 역기능, 신성함과 궁극성 등 종교의 경험, 종교의 제도화와 딜레마, 이단교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접근, 세속화에 대한 종교의 반응 등을 다루었다.